

2005년 일반(남, 여) 2차 기출문제

형법담당 : 조태엽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홍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의 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다음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위법성인식은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 ④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13세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은 부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

3. 甲이 변심한A(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친구 乙에게 A를 강간하도록 부탁하자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A를 강제추행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甲-강간교사, 乙-강제추행
- ▶② 甲-강제추행교사, 乙-강제추행
- ③ 甲-강제추행교사, 乙-강간죄
- ④ 甲-강간미수교사, 乙-강제추행

4. 甲과 乙은 간호사 丙의 집에 들어가 丙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丙을수회 폭행하여 丙의 얼굴과 팔 다리 부분에 멍이 생기게 하였다. 丙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직장이 휴무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 받지 않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폭행치상죄
- ▶② 특수강도죄
- ② 강도상해죄의공동정범
- ④ 강도치상죄

5. 甲은 교회 담임목사인 乙의 비리로 인하여 출교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乙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 甲의 죄책은?

- ① 모욕죄
- ▶② 310조에 의하여 무죄
- ③ 출판물에의한 명예 훼손죄
- ④ 명예훼손죄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가 사후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지만,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중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비조로 주위의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18. 다음중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인근 주민이 일시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사용한 경우도 육로라고 할 수 없다.
- ② 주민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였다
- ③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 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에는 선박매몰죄 미수의 책임을 진다.
- ④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우측의 편도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진하면서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담당 건설업자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 乙의 수뢰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은 수뢰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 ③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④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형량을 감경케 하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다음중 판례가 포괄일죄를 인정한 경우는?

- ▶①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절도죄 이 외에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 ②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 ③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 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담대출을 하여 주었다.
- ④ 피고인이 횡령을 한 후 사기를 하였다.